

## 한국청년회의소 임원단 간담회

JC의 구호는 조국의 미래. 참여정부의 임무는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에 맞게 모든 분야를 설계하고 조국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토대를 세우는 것.

존경하는 양승재 회장 및 회원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방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JC의 구호는 조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조국의 오늘이며, 약동하는 조국의 힘입니다. 새삼스럽게 힘이 돋습니다. 정치하면서 여러 과정에서 선배들과 함께 해왔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JC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뛰어넘어 국제봉사, 남북평화정착에 일조하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JC출신으로 세계적인 많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만난다 하니 대화요지와 함께 JC출신 지도자들 이름 적어 주십니다. 훌륭한 분이 많은데 한 명 빠졌습니다. 바로 제가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 78년부터 부산 북부산 JC에서 2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소개할 때 짧고, (JC)지도자 위치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성실한 회원 1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고 기록하고 소개해주십시오.

여러분은 80년대를 살아왔습니다. 민주주의가 도약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 시대를 함께 뛰었습니다. 비판적 관점으로, 비판정신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비판적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국정을 책

임진 저의 처지에서는 너무 어둡게 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희망찬 믿음과 비판적 제안을 합시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낙관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80년대에 길을 열어준 민주주의가 지금도 착실히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민주적인 사람들이 일선에 참여했습니다. 활력있는 정치 참여가 이뤄지고 있고 이것이 한국사회를 빠른 속도로 성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부분을 간소화했습니다. 정당에 대한 지배권에서 손을 뗐습니다. 당직임명도 없고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4대 권력기관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에게 권력이 봉사할 우려 때문입니다. 이 기관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의사결정구조로 발전하면 밀실형 의사결정구조는 아마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개방형 의사결정구조는 다소 시끄럽고, 다소 리더가 흔들리는 것으로 비칠지 모르나 수평적, 협력적 리더십이 형성되고 독자적 리더십이 아니라 민주적 리더십이 형성될 것입니다. 국민에 뿌리를 둔 시대로 갈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많이 걱정합니다. 위기는 일단 넘어섰습니다. 취임했을 때 300만 신용불량자와 금융시스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고가 안 터져 위기감은 덜했지만 심각했습니다. 카드사 문제 등 아직 정리는 안됐지만 하나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350만 신용불량자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하려면 오히려 사고가 납니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결할 것입니다. 화끈하게 풀고 싶지만 그러면 경제시스템 위기가 옵니다.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차근차근 풀어갈 것입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기술혁신을 향상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물을 만들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성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실력으로 경쟁해, 존경받는 부자, 존경받는 기업인이 나올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6자 회담 잘 풀릴까 걱정할 것입니다. 한국이 전적으로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북미 관계를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상황을 조율할 능력이 있습니다. 북핵문제 만큼은 정말 섬세하게 한발한발 물어보고 짚어보고 정말 신중하게 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촛불시위도 있었고 한미관계가 자존심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 그렇게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세고 강하고 영향력이 있지만 우려하는 만큼, 자존심이 상할 만큼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뒤에는 거의 영국, 독일, 프랑스가 누리는 세계적 지위나 발언력을 가질 것입니다. 국제관계, 대미관계도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한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과 미국간에 갈등을 겪으면서 북핵문제를 풀 수 있고, 손잡고 상의해 손발 잘 맞춰서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조가 잘 될 때는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생깁니다. 지금 시기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기업이 들어갈 것이고, 세계기업이 들어갈텐데 그럴려면 도로, 항만, 전력 등 기반산업을 확충해야 합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IMF, IBRD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제적 승인 속에 민간투자와 공적 지원을 받으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지원을 승인하고 이끌어갈 때 북한의 경제부흥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북핵문제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다급한 처지지만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에 답답한 쪽이 아닙니다. 답답한 쪽은 한국입니다. 미국은 호의를 가지고 한국의 요청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핵문제해결, 북한의 경제부흥, 남북의 평화정착 등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문제 등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우호 관계 속에 가능합니다. 미국에 조금 속상하더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손 꼭 잡고 가야합니다. 80년대를 살아온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의문과 불만이 있더라도 저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10년 뒤, 아니 10년 안에 자주 국방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동북아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안정적인 균형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으로 갖고 나가야 합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안되도 좋다는 마음으로 정치했고, 대통령 못 되도 좋다고 단일후보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원칙을 갖고 정치를 해 왔습니다. 자주 국가의 체면을 살리는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5년 안에 해결하지 못해도 다음 정부는 쉽게 이를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 시대의 주역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허물없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약간, 약간이 아닌 허물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지도자가 허물로 사과하고 해명하지 않도록 다리를 놓겠습니다. 새시대의 만형이 되겠다는 꿈에서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옛날시대의 막내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나올 수 있도록 과도기 관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것도 또한 중요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